

‘나주혁신도시 광역전철역 어디로?’

경전선 신선 타당성 용역 착수

국토부, 용역사 선정 마무리
광주~순천간 122.2km 대상
연내 기본·실시설계 착수

‘경전선 신선’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면서 신선 중간 경유지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처음으로 들어설 신설역 위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신설역은 경전선 신선과 광주도시철도를 연계한 광역전철역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2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에 마치고 본격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추진된다. 범위는 경전선 광주~순천간 122.2km가 대상이며, 기존선 48.7km와 신설선 73.5km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관련 용역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 경전선 신선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10~12월에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주혁신도시는 용역 범위 중 ‘경전선 신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 73.5km 구간의 중간 경유지에 포함돼 신설역이 들어서게 된다. 나주시는 국토부에 혁신도시(빛가람동) 신설역사 위치와 노안역에서 분기될 노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전선 신선’은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총연장 122.2km, 설계속도 시속 250km에 1조770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나주혁신도시에서 전철을 타고 광주송정역을 경유해 광주역까지 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 도시를 경유하는 지하철 이동도 가능해 집에 따라 혁신도시와 광주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2시간 16분이 소요됐던 ‘광주송정~순천’의 운행 시간도 43분대로 크게 단축됨에 따라 나주혁신도시에서 전남 동부권과 경남지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 내 ‘경전선 신선’ 경유는 KTX와 SRT가 경유하는 나주역 증축공사 준공과 더불어 도시경쟁력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상주성주봉 바위 속 샘물.

“상주성주봉 ‘바위 속 샘물’서 힐링하세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휴양림이 주목받고 있다. 성주봉 바위 속 샘물과 전망 데크(deck) 등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기 때문이다. 성주봉휴양림은 오는 12월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해 평소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휴양림을 찾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성주봉 등산로 입구에는 ‘성주봉 가는 길’이라는 아치 조형물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이용 하도록 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용 야자매트와, 급경사 구간에 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 좀 더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성주봉 바위 속 샘물’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은척면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데크를 설치하고 주변 환경까지 정비했다. 등산객들은 “이곳 전망 데크에 오르면 피로가 풀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주봉자연휴양림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휴장하는 동안 산림휴양관 내부 조명과 냉장고 등 각종 집기류를 전부 교체했다. 휴양림 내 수목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이용섭 “군공항 이전, 특별법·지원 확대로 풀어야”

〈광주시장〉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용섭 광주시장(사진)은 23일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분위기 띄우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특별법 개정, 정부의 이전 대상 지역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국가 시설인 군 공항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시민이 소음 피해를 봤다”며 “군 공항 이전은 정부 국정과



제에도 포함됐으니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해 추진하면 국방부는 소극적으로 승인만 하는 상태”라며 “지역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 의원 등과 협의해 이런 상황을 개선할 법안이 의원 발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전 지역에 군 공항을 건설하고 현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대상지에 지원하는 금액이 45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공항을 받을 지역에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가령 국방부가 추가로 4500억원을 지원하면 9000억원이 되지 않겠느냐”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추가할 대안을 만들어야 추진위원회 활동 등으로 분위기를 띄워야 자칫 시도 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부산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미술관·복지관·체육센터처럼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부산지역에서도 문을 연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내달부터 총괄 건축기획과에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건축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공공 건축물 품질 확보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올해 시를 비롯해 구·군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사업계획사 검토도 업무 수행에 주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 DB 구축과 건축기획 업무 등으로 수행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지난 1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해왔다. /부산=허원 기자

전국체전 순연여부 내달 초 결정 전망

지자체·방역당국 등 협의 후 결정
이철우, 울산 방문해 순연 요청
올해 전국체육대회 순연 또는 취소 여부가 7월 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8~14일 전국체전을 개최할 예정이던 경상북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을 우려해 10일 전국체전 연기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오는 25일 내년 전국체전 개최 도시인 울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대회 순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가 2021년 울



산, 2022년 전남, 2023년 경남, 2024년 부산으로 결정된 터라 경북이 전국체전을 1년 연기하려면 다음 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내년 개최지인 울산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 울산이 순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북은 전국체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시설비로 1300억원 가까이 투자한 상황이라 1년 후 개최를 희망한다.

이 지사와 송 시장의 회동 결과에 따라 전국체전 순연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올해 소년체전(서울)과 생활체육대축전(전북)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에서 2차 유행, 비수도권에선 확산 초기 조짐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사태 위기감이 고조된 탓에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관계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7월 초께 전국체전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남안동 IC 분수조형물 및 쉼터 조성(분수대 야경)

/안동시

‘안동의 첫인상’ 남안동 IC 분수 등 정비

안동시가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첫인상’이 될 주요 관문인 남안동 IC 주변을 산뜻하게 정비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시는 일찍이면 조타리 남안동 IC 입구 한국도로공사부지 약 2,000㎡ 내에 소형주차장, 분수 조형물 및 육각 정자 설치 등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주요 관문인 남안동·서안동 IC 주변 경관정비는 안동시를 찾는 관광객과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 등을 위해

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총 3억61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도로 출구에 안동시 도착을 알리는 ‘분수 글자조형물’을 설치해 여름철 시원함과 함께 ‘안동’이란 영문글자 조형물에 조명을 추가해 야간에도 밝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소형주차장(11면)과 육각 정자, 벤치 등을 설치해 장시간 운전에서 지친 운전자들이 잠시나마 휴식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오늘의 날씨

6월 24일(수)
음력: 5월 4일

수도권 날씨
24~2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백령도 18/20, 파주 21/23, 서울 23/24, 인천 22/24, 수원 23/24, 평택 22/25, 연천 22/24, 동두천 21/24, 가평 21/23, 양평 22/25, 용인 23/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